

Braskem, Metallocene PE 양산

2004년 1/4분기 10만톤 도달 ... 2004년 매출액 3000만달러 전망

브라질의 거대 석유화학기업인 Braskem이 Metallocene계 PE(Polyethylene) 양산에 들어가 2004년 1/4분기까지 총 10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.

Braskem은 중남미 석유화학기업으로는 최초로 Metallocene계 PE를 생산하는 것으로 2004년 Metallocene계 PE 매출이 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이와 관련해 ExxonMobil Chemical 및 Dow Chemical의 합작기업인 Univation Technologies는 Braskem과 브라질 석유화학기업에 Univation의 Metallocene 기술인 Xcat을 공급하기로 했다.

Braskem에 따르면, 브라질의 2003년 Metallocene PE 수입액은 약 4000만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미국 수입이 약 80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20%는 유럽산이 차지할 전망이다. 또한 브라질 Metallocene계 PE 시장이 2006년 약 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Braskem은 앞으로 Bahia의 Camacari에서 Metallocene PE를 생산하게 되는데, Camacari 소재 PE1 Unipol 계 PE 플랜트를 Metallocene계로 전환하는데 총 340만달러를 투자했다.

한편, Brskem은 2006년 Metallocene PE 플랜트 가동률이 100%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1/29>